

종합·해설

4·9총선 석 달 앞... 신당·민주 원내대표에 듣는다

4·9총선을 석 달가량 앞둔 13일, 김효석 대통령직수호위원회 원내대표와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호남의 정치적 그림자를 피하고, 호남과 수도권에 아우르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선 합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원칙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두 대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통합이 실패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 아직까지도 불화의 앙금이 남아있음을 내비쳤다. 양 당의 원내대표로부터 호남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들어봤다.

“호남 정치 대위기... 합당 절체절명의 과제”

신당 김효석 의원

—총선 전망이 어둡다. 정치적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이 개헌 지지선은 물론, 70%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면 국민이 개헌 지지선 확보 이상의 성원을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

—분열 구도 극복은 총선 전에 범여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총선 전에 범여권은 하나가 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중앙 정부의 권력을 잡은 것은 물론 지방정부, 지방의회, 일부 언론까지 독점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권력까지 내준다면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범여권의 대통합을 통한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대오 형성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부여된 역사적 소임이다. 끝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을 방관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통합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선 전에 민주당과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 또한,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원래 뿌리가 같은 정당이라는 점에서 결단만 내려진다면 통합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과의 통합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실패했는데.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호남의 민심은 대통합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 맞설 대안정당 절실
새로운 희망·비전 제시하면
개헌 지지선 이상 확보할 것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은 통합을 통해 한나라당에 맞설 대안 정당을 건설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선 참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겸허한 자세로 새롭게 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설 것이다. 만약, 어느 한 편에서라도 통합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의 병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손학규 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신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통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최고위원이 지명되는 등 새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질 전망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여기에 많은 당 내외 인사들이 총선 전 단일대오 형성을 위해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본다.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공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시간은 충분하다. 일단 선거구 확정 문제를 2월 중순까지 진행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양 당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1월 말에도 통합이 이뤄지고 이후 공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신당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둔데다 현역 의원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과의 통합은 단순한 의석수를 떠나 호남과 민주·개혁·평화 세력이 다시 결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범여권이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총선 전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면 국민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당장, 현실적으로도 수도권 등에서 호남 민심의 결집을 바탕으로 민주·개혁 세력이 다시 복원되면서 총선에서 통합신당의 바람이 불 수 있다.

—총선 공천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통합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 범여권 제 정파가 기득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시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절박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통합에 나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 못하면 호남 고립 현실화
신당은 오만 말고 적극 나서야
총선 연합공천 후 통합도 방법

으로 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은 준비가 돼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양당 대표와 후보가 합의한 4차 합의를 후회조각으로 만들었다. 당시 통합 협상에 나선 책임자로서 어렵고 유감스럽다.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민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대표로 선출했다.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사이비 진보 그룹보다는 중도·개혁 노선에 가깝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이었던 친노 그룹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루빨리 결별해야 한다.

—공천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통합의 최대 난제다.

▲대통합이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호남은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예전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겪지 못했던 최대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천 등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후안무치한 일이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현역의원들이 우선 기득권을 버리고 백의종군한다면 통합은 아주 쉽다.

—박상천 대표가 연합공천을 거둔 바 있다.

▲선거구 확정 이전까지 통합을 적극 추

민주 최인기 의원

진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연합공천도 고려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맞서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에서 연합공천을 통해 양당이 연대하고 총선 이후 통합을 하는 단계적 접근법도 생각해야 한다. 박 대표는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연합공천을 제기했지만 전국에서 연합공천도 가능하다. 호남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수도권 등에서는 연합공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의 당세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는 통합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합 합의를 뒤집었던 신당 측이 최근 통합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역의원들이 많아 공천 문제 등 통합에 나서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넘치만 믿고 오만한 자세로 나서다가는 총선에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솔직히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뿌리도 없고 좌표를 상실한 가설 정당이다.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지난 50년 동안 민주·개혁정당의 맥을 이어온 민주당

없는 대통합민주신당은 가설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한가.

▲당내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통합이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중도 개혁을 바탕으로 한 민주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박상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통합 의지는 확고하며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제 그 진정성을 보여줄 차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09 학년도 공립학교 (유치원·초등·중등·보건) 교사임용시험?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임용시험 3단계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http://www.naeyoung.com

금당부동산 223-7400 016-632-5659. 사찰(절) 및 사찰부지. 남구 월산동 문화방송국 옆. 광주 시내 전체를 조망하며, 무등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주변은 APT 6천세대 이상을 재개발하는 최상의 요지. 대지 51평 공사비가 5억5500만원 대역의 조정가능. 분양권 매매 운암동 벽산블루밍. 107동 46평형(가운대층)로 앞쪽 파워형 남향 전망 최고. 총분양가 2억9천7백만원 계약금: 14,850,000원 입주 매: 2억9천7백만원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연수비용 영어공부 하기 좋은 이유? 1. 기숙사 통합 관리 시스템, 2.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 3. 100%의 영어사용환경을 유지, 4. 세미스파르타식 어학원.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선착순 30분씩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요금 및 교재비 별도): - 비자 연장 및 ssp 발급, - 마닐라 공항 픽업, - 청소 빨래 식사 등의 각종 편의 제공, - 각 레벨에 따른 수료증 발급. 학원건물, 휴게실, 학원입구, 도서관. 상담문의 062) 264-0882, 010-2255-0459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교원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교육원 교육학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배주- (화,목) 오후 6시-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062)222-6790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 겨울방학 대 특강!! = 행정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자직, 복지직, 토목직, 건설직, 불특정직. 개강 1월 15일 주·야 (총합)반 모집 (월 세 예 일).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www.mdgoal.co.kr 222-4560. www.hanbil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 특강. 개강 2월 1일. 9급 문재물이반 (1개월원생) 개강 2월 1일. 9급 이론박수반 (2개월원생) 전직종 첫진도. 한빛공무원학원 062) 252-0252